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여러 사회의 도덕 풍습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해 왔는지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선'이나 '의무' 같은 도덕적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따지고, 도덕 판단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① (가) : 옳고 그름을 판정할 보편적 원리를 세우는 것이다.
② (가) : 도덕 현상의 실태를 가치 평가 없이 서술하는 것이다.
③ (나) :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찾는 것이다.
④ (나) : 도덕 풍습의 변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 바람직한 삶의 규범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의 희망을 주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체외 수정 뒤 남은 잔여 배아는 어차피 폐기될 운명이므로, 이를 연구에 쓴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 을 : 난치병 치료가 소중한 목표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배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닌 생명입니다. 폐기될 운명이라 해서 그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갑 : 아닙니다. 배아는 감각도 의식도 없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잠재성을 지녔다는 것만으로 이미 태어난 인간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 을 : 잠재성은 인간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근거이므로, 배아는 이미 태어난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배아를 연구 재료로 쓰는 것은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일입니다.

① 난치병 치료는 추구할 만한 의료적 목표인가?
② 잔여 배아는 결국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는가?
③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가?
④ 잠재성을 지닌 배아는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⑤ 배아는 감각과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연자

> 사랑은 감정에 몸을 맡기는 일이 아니라 훈련으로 익혀 가는 기술입니다. 사랑에는 보호, 책임, 존경, 이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생명과 성장을 돌보고, 그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며, 그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대를 깊이 아는 일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① 존경은 상대를 내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태도이다.
② 사랑은 상대에게서 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감정이다.
③ 책임은 상대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에서 나온다.
④ 상대에 대한 보호는 그를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을 잃고 상대와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 선한 것은 인위[僞]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를 따르면 다툼이 생기고 사양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교화와 예의(禮義)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 을 : 바른 것 중의 바른 것은 타고난 본성의 참모습[性命之情]을 잃지 않는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 주면 근심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면 슬퍼한다. 그러므로 본성이 긴 것은 자를 일이 아니고 본성이 짧은 것은 이을 일이 아니다. 아마도 인의(仁義)는 사람의 참모습이 아닐 것이다.

① 갑 : 성인과 일반 사람은 타고난 본성부터 서로 다르다.
② 갑 : 예의는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한 결과이다.
③ 갑 : 성인은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 예의를 만든다.
④ 을 :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하려면 인의를 배워 익혀야 한다.
⑤ 갑과 을 :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세상은 혼란해진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사회 집단의 행위를 개인의 도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앞세울 줄 알지만, 집단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국심만 보아도 개인의 이타심이 모여 국가의 이기주의가 된다. 그래서 개인의 최고 이상은 이타심이지만, 사회의 최고 이상은 정의이다.

① 집단의 도덕성은 구성원 개인의 도덕성에 비례한다.
② 개인의 이타심이 커질수록 집단의 이기심은 약해진다.
③ 사회 갈등은 교육과 이성의 발달로 해소될 수 있다.
④ 집단 간 정의는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⑤ 사회 윤리에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 학생들에게**
> 행복을 옳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걱정하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행복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이며,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서 사심 없는 관찰자처럼 엄정하게 공평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을 희생할 수 있지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은 아니며 행복의 총량을 늘리지 못하는 희생은 낭비일 뿐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게 하는 궁극적 힘은 양심의 감정, 곧 내적 제재입니다. 남이 내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황금률에서 저는 공리의 윤리가 지닌 완전한 정신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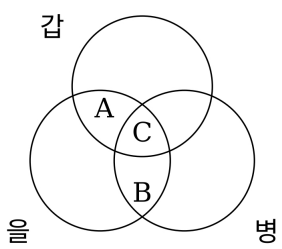
① 옳음을 판단할 때 자신의 행복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행위의 옳음은 행위자의 동기가 선한지에 달려 있다.
③ 자기희생은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한 행위이다.
④ 쾌락은 양만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진다.
⑤ 규칙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증진보다 우선해야 한다.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이익을 가지려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고통은 어떤 종의 고통이든 도덕적 고려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을 : 인간이 다른 종보다 본래 우월하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편견이다. 생명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개별 유기체는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이 가치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 병 :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경계를 토양, 물, 식물, 동물로 넓힌다. 대지를 우리가 소유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볼 때, 비로소 사랑과 존중으로 대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나)



범 례
A :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B :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C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ㄱ. A : 인간이 아닌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ㄴ. A : 도덕적 고려의 일차적 대상은 개별 존재이다.
ㄷ. B : 감각 능력이 없는 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ㄹ. C : 종이나 생태계 같은 전체도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정치를 맡는다면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을 것이다[正名].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을 : 각자의 소명(召命)은 주님이 세워 주신 초소와 같으니, 함부로 떠돌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누구든 소명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일은 없다.

① 갑 : 지위에 따른 직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② 갑 :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도 정치에는 지장이 없다.
③ 을 : 직업을 통해 얻는 부는 그 자체로 죄악이다.
④ 을 : 세속의 직업은 수도원의 삶보다 신앙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닌다.
⑤ 갑과 을 : 직업의 가치는 얻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평가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평등한 자유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주된 대상이다. 반면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보통 정치 과정에서 다룰 문제이다. 같은 부정의를 겪는 집단이 여럿이면 모두가 불복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불복종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한다.
② 불복종자는 처벌을 감수하여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 준다.
③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일 뿐이다.
④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거부처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지 않는다.
⑤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다른 집단의 사정과 무관하게 판단된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진정한 예술과 거짓 예술을 가르는 확실한 징표는 예술의 전염성이다. 전염의 강도는 감정의 독특함, 표현의 명료함, 예술가의 진실함에 달려 있으며, 전염이 강할수록 예술로서는 더 뛰어나다. 그러나 이는 내용과 상관없이 예술로서의 우열을 가린 것일 뿐이다. 내용의 좋고 나쁨은 그 시대의 종교적 인식에 비추어 따로 평가해야 하며, 오늘날 그 인식은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자각이다.

① 예술의 가치는 작품의 형식미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예술의 가치는 작품이 주는 쾌락의 크기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예술가의 진실함은 전염의 강도와 무관하다.
④ 도덕적 내용을 담은 작품은 전염성이 없어도 참된 예술이다.
⑤ 전염성이 강하다고 내용까지 좋은 예술인 것은 아니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어떤 섬의 주민들이 모두 합의하여 시민 사회를 해체하고 흩어지기로 결의하더라도, 감옥에 남은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것을 받게 되고, 피의 죄책이 그 국민에게 남지 않는다.
> 을 : 모든 법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그러므로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형벌은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범죄의 해악이 클수록 그것을 막기 위해 더 큰 형벌을 치를 만하다.

<보 기>

ㄱ. 갑 : 예방 효과가 없다면 살인자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
ㄴ. 갑 : 살인자에게 사형이 아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응보의 원리에 어긋난다.
ㄷ. 을 : 범죄를 막는 효과가 없는 형벌은 부과해서는 안 된다.
ㄹ. 갑과 을 : 형벌의 정도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약하든 강하든,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어디서든 누구도 속이거나 얕보지 말고, 성냄이나 증오로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보 기>

ㄱ. 자비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열반에 이른 뒤에야 실천할 수 있다.
ㄴ.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자비의 바탕이다.
ㄷ. 자비는 불변하는 자아가 타자를 향해 베푸는 덕이다.
ㄹ. 성냄을 다스리는 수행은 자비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모두를 두렵게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동안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입니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이 없고,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도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이성이 곧 그 법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신체의 노동을 자연물에 섞음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듭니다.


을

<보 기>

ㄱ. 갑 : 주권자도 사회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구속된다.
ㄴ. 갑 :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ㄷ. 을 : 소유권은 타인의 동의 없이 노동으로 성립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인민에게 남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어도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변함없는 마음도 없어진다.
> ○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① 인의를 해친 군주는 백성을 위해 교체될 수 있다.
② 백성의 도덕성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③ 임금의 권위는 백성의 뜻보다 앞서야 한다.
④ 선비도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변함없는 마음을 지닐 수 없다.
⑤ 왕도 정치는 엄한 형벌로 백성을 바로잡는 정치이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에서 개인이 분업에 예속되는 일이 사라지고 노동이 삶의 제일가는 욕구가 되면, 사회는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 을 : 내 노동의 결실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나를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국가가 그 몫을 가져가 남에게 주면 그들은 나의 일부를 소유하는 셈이 된다.

① 갑 : 공산주의 첫 단계부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된다.
② 갑 : 노동량에 따른 분배는 이상적 분배 방식이 될 수 없다.
③ 을 :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어도 결과가 불평등하면 부정의하다.
④ 을 :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재분배는 정당하다.
⑤ 갑과 을 : 국가의 강제적 재분배는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16.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 2026년 □월 □일
>
> **생각을 멈춘 자리에 남는 것**
>
> 나치 전범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철학자는 그에게서 괴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평범한 사람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 지능이 내놓은 결론을 별다른 검토 없이 따르곤 한다.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알고리즘의 결과일 뿐이라고 답하는 담당자의 말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과 닮아 있다. 기술은 판단을 도울 수 있지만,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일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악은 사악한 의도에서뿐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에서도 자라난다.

① 인공 지능을 쓰면 판단의 책임은 기술로 옮겨 갈 수 있다.
② 악은 특별히 사악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난다.
③ 판단을 기술에 맡기고 사유를 멈추는 것은 악을 키울 수 있다.
④ 알고리즘을 따른 담당자는 명령을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
⑤ 인공 지능의 활용을 중단해야만 악을 막을 수 있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인간의 좋음은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니듯, 하루나 짧은 기간의 활동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 을 : 어떤 상인이 경험 없는 손님에게도 같은 값을 받는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① 갑 : 품성의 탁월성은 교육을 통한 앎만으로 갖추어진다.
② 갑 : 행복은 명예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③ 을 :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의도가 아닌 결과에 달려 있다.
④ 을 :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⑤ 갑과 을 : 같은 행위라도 내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영구 평화로 나아가려면 먼저 다음이 지켜져야 한다. 장래 전쟁의 구실을 몰래 남겨 둔 평화 조약은 평화 조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한낱 휴전일 뿐 평화가 아니다. 상비군은 언제나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여 다른 나라를 위협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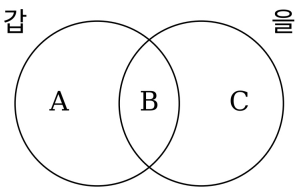
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②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를 하나의 세계 국가로 통합해야 한다.
③ 국가의 통치 형태는 평화의 실현과 무관하다.
④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은 구성국을 강제할 공권력을 지녀야 한다.
⑤ 부정의한 국가의 체제는 다른 국가가 무력으로 바꿀 수 있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제도를 스스로 운영하게 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 문화이다.
> 을 :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집 아이인지 얼굴도 모르는 먼 나라의 아이인지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기근 구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나)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 사회 간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 자체가 원조의 목표이다.
ㄴ. B : 적정한 제도를 갖춘 사회는 빈곤하더라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ㄷ. B :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의무이다.
ㄹ. C : 원조의 궁극적 대상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에서 진정한 인간적 삶이 지속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인류의 존재가 걸린 문제에서는 좋은 예측보다 나쁜 예측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류의 존속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도박의 판돈으로 걸 수 없다.

<문제 상황>

A는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 성층권에 입자를 뿌려 햇빛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수십 년 뒤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A는 이 기술을 실제 대기에서 바로 시험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현세대 모두가 동의하면 미래 세대의 위험은 문제 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② 나쁜 결과의 가능성이 낮아도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라면 실행을 미루세요.
③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한 뒤 실제 시험을 진행하세요.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음을 명심하세요.
⑤ 기대되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면 실제 시험을 진행하세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